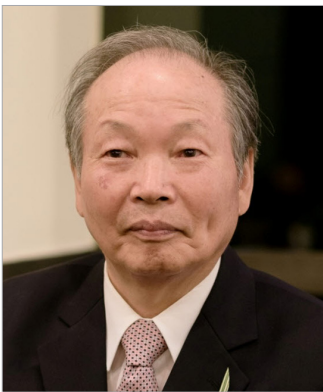


실크로드와 문양의 길: 당초문과 아라베스크



강사: **김양동** 교수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민대학교 한문학과(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한문학)을 수료했다. 철농(鐵農) 이기우(李基雨) 선생에게서 서예·전각을, 임창순(任昌淳) 선생과 신호열(辛鎬烈) 선생에게서 한문을, 예용해(芮庸海) 선생에게서 한국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원광대학교 서예과 교수를 거쳐 계명대학교 서예과 교수,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북경대학교 서법연구원 초빙교수,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장, 한국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 대학 서예과 설치 운동 총괄책임자 등을 지냈다. 동아미술상, 대한민국미술인상 본상, 일중서예상 대상, 황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

뉴욕, 파리, 예술의 전당, 통인화랑 등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2005년 미국 메트로폴리탄 뮤지엄과 필라델피아 뮤지엄에 작품이 소장되었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계명대학교 도서관, 대전대학교 도서관, 성철스님기념관 등 주요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었다.

문양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이며 정신활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창조적 미화활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문양을 '생각의 지문(指紋)' 또는 '문화의 거울'이라고도 한다. 또한 문양은 인류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현실적 기원을 의탁하는 일종의 주술적 성격이 내포된 것으로 인간 사유의 고대적 예술이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크로드 문명과 당초문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짚어보려 한다.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 간에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정치·경제·문화의 통로가 실�크로드이다. 이러한 실�크로드 문명권에 공통적으로 형성된 문양이 당초문(唐草紋)이다. 이러한 당초문에 대하여 기원과 발생, 당초(唐草)의 원의(原意)와 그 상징과 해석, 당초문의 역사적 전개 등에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전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강의 내용이다.